

시즌 6

제3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이감**

## [2021학년도 시зн6 제3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 [16~21] 고전시가 : (가) 박인로, 「누항사」

#### \* 수록 지문 평가

작가가 51세 때, 벗인 한음 이덕형을 찾아갔다가 이덕형이 산골에서 지내는 삶이 어떤가 묻자 대답 대신 지은 작품이라 한다. 「누항사」란 제목은 「어려운 시골 살림을 읊은 노래」쯤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를 원망하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는 가운데 충효와 형제 사이의 화목, 벗들과의 신의를 추구하며 살겠노라는 내용이다. 아래 지문은 논갈이를 하겠다고 집에 없는 소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을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한동안 좌절에 싸여 의기소침해 있다가, 농사일은 던져 두고 강호에서 자연을 벗 삼아서 굶주리더라도 충효 등의 덕목을 좇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대목이다.

#### \* 수록 지문 분석

와실(蝸室, 작고 초라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 화자는 소를 빌려주겠다고 말했던 사람에게 빈손으로 소를 빌리러 갔다가, 빌려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지금 마음이 아주 괴롭다. 술과 음식을 해다 바치며 소 빌리기를 부탁한 사람이 있어 이미 소를 빌려주기로 했으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자존심도 상하고, 세상인심이 이런 건가 싶고,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안 온다. 북창(北窓)을 비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 북창에 비스듬히 기대어 새벽을 기다리니  
 ⇒ 잠이 안 와 결국 다시 일어나 창가에 기대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새벽을 맞는다.  
 무정(無情)한 오디새는 이내 한(恨)을 돕는구나  
 ⇒ 「오디새」 울음소리에 화자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진다. 「오디새」는 화자의 비애를 심화하는 대상이다.  
 아침 내내 한탄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거다.  
 즐기는 농가(農歌, 농부들이 일하며 부르는 노래, 곧 농부가)도 흥(興)없이 들리도다  
 ⇒ 즐거운 듯한 농부들의 노래가 농사에 나설 수 없는 화자에게 흥겹게 들릴 리 없다.  
 세정(世情, 세상 형편, 또는 세상 사람들의 인심)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모르다니 한숨이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 소를 빌려준다는 말만 믿고 빈손으로 찾아간, 더구나 사실 뭐 이 옷에게 대접할 형편도 안 되는 그로서는 자신의 순진함이 너무 한심하다 생각되는 거다.  
 술 고기 있으면 권당(=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벗도 많으련만  
 ⇒ 「남을 접대할 만한 재물이라도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모일 텐데」 정도의 뜻이었다.  
 두 주먹 비게 쥐고[→ 빈손으로] 세태 없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도 모르는] 말쑥에 모양조차 못 고우니[→ 생김 모습이 불품없고 초라하니]  
 → 빈손으로 [찾아가] 물정 모르는 말쑥에 [내] 모습조차 불품없으니  
 ⇒ 지난밤 이웃을 찾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소 빌리는 데 실패한 까닭을 나름 분석하며 또 한 번 부끄러워하고 있다. 소 빌리러 가면서도 빈손으로 갔으니, 세상 형편이나 인심도 모르는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불품없고 초라했다는 거다. 밤새 「이불킥」을 수없이 하지 않았을까 싶다.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리고 말았거든

⇒ 아침나절 잠깐 부릴 소도 못 빌릴 만큼 자신이 주변머리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다.

하물며 동곽 번간(東郭墻間, 성 동쪽 외곽의 무덤 사이)에 취할 뜻을 가질쏘나

→ 하물며 「동곽 번간」 고사의 인물처럼 행동해서 취하겠다는 뜻을 가질쏘나?

⇒ 올바르게 못한 처세로 벼슬자리나 술, 음식을 얻어 보려 할 생각이나 주변머리가 있겠느냐,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동곽 번간」은 『맹자』에 나오는 말로 부끄러운 처세 방법을 의미한다. 그 고사의 내용은 이렇다. 중국 제나라의 어떤 사람이 처와 첩을 두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무덤 사이를 다니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서 술과 음식을 얻어먹고 취한 것이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부끄러운 이들과 사귀며 대접받은 것처럼 허세를 부렸는데, 나중에 아내들이 남편의 이런 행실을 알고서 매우 부끄러워하며 울었다 한다. 남편의 실제 행실은 남에게 빌붙어 술에 취하는 일이 되었고, 그러한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다면 그것에는 부끄러운 이들과의 사귀음을 통해 영달을 추구하는 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올바르게 못한 처세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 잠깐 쓸 소도 못 빌리는 위인이 부귀와 영달을 추구할 무슨 재간이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고백이라 하겠다.

아까운 저 소뉘(= 쟁기, 소에 멩을 걸어 논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는 벗(= 보습 위에 대는 쇳조각) 보임(= 헐거워진 벗이 움직이지 않게 끼우는 중이나 형질, 또는 가족, 또는 그러한 일)도 좋을시고

→ 아까운 저 쟁기는 벗 보임도 좋구나.

⇒ 보임으로 벗을 단단히 대어 「소뉘(= 쟁기)」를 잘 갖추어 놓았다는 뜻이었다.

가시 영킨 목은 밭도 용이(容易)케 갈려마는

→ 가시 영킨 목은 밭도 [저 소뉘로는] 쉽게 갈 수 있겠지만

빈방 반벽(半壁, 벽 가운데)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 빈방 벽 가운데 쓰일 데 없이 걸려 있구나.

⇒ 소가 없으니 「소뉘」를 쓸 일도 없는 거다. 그래서 어디 쓰일 데도 없이 벽에 덩그러니 걸려 있는 거다.

춘경(春耕, 봄철에 논밭을 가는 일)도 늦었으니 후리쳐 던져두자

→ 봄갈이도 [이미] 늦었으니, [농사일은] 뎡게쳐 던져두자.

⇒ 소가 없어 논을 갈 수조차 없으니, 올해 농사일은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다.

강호(江湖)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러니

→ 강호를 꿈꾼 지도 [벌써] 오래 되었더니

⇒ 여기서부터 갑자기 지상이 전환된다. 소를 빌려 논갈이 할 생각에 여념이 없던 화자가 소 빌리는 게 어렵게 되자, 한동안 의기소침하고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대뜸 농사일은 내던져 두고 갑작스레 「강호」를 떠올린다.

구복(口腹, 먹고살기 위해 음식을 먹는 입과 배)이 누(累)가 되어 어즈버 있었도다

→ 구복이 누가 되어 아, [강호를] 잊고 있었구나.

⇒ 강호의 꿈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먹고사는 데 정신이 없어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다. 그런데 이제 먹고사는 데 매달릴 생각을 접고 보니, 잊고 있었던 꿈을 새삼 떠올리는 거다.

기수(淇水) 물가 바라보니 녹죽(綠竹)도 하도 할사

→ 기수의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도 많기도 많구나.

빼어난 군자들이[→ 중국 기수 강가의 푸른 대나무를 군자로 의인화하여 선비의 덕목을 나타낸 『시경』의 구절을 인용한 것] 낫시대 하나 빌려스라

⇒ 『시경』에 「기수의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무성하구나. 빼어난 군자들이여, 잘라서 갈고 쪼아 놓은 것처럼 군세고 빛나며 점점

으니, 빼어난 군자들이여, 끝내 잊을 수 없구나.'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대나무의 속성에 빗대어 선비가 가져야 할 품성을 나타낸 것인데, 화자는 이 시구를 떠올려 인용하면서 선비가 가져야 할 품성을 견지하겠다는 다짐을 내비치고 있다. [대나무로 만든] 낚시대를 빌려 달라는 말은, 대나무가 표상하는 군자의 풍모와 강호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의 삶[→ 흔히 낚시질하는 어옹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삶]을 연결하는 정도의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노화(蘆花,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빛이 되어  
→ 갈대꽃 우거진 곳[→ 물 가까운 곳]에 밝은 달 시원한 바람과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 아름다운 자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서 저절로 늙어 가리라.

무심(無心, 세속에 전혀 관심이 없음)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하라  
→ 무심한 백구가 [나더러] 오라 하지, 오지 말라 하겠느냐  
→ '백구'가 표상하는 강호 자연이 화자를 반길 것이라는 확신, 또는 자부심이 묻어난다.

다툼 이 없을손 이[→ 풍월강산]뿐인가 여기노라  
→ 다툼 사람이 없는 것은 이뿐인가 생각하노라  
⇒ '풍월강산'을 차지하겠다고 나와 다툼 사람이 없다는 거다. 그러나 오롯이 풍월강산을 누릴 수 있는 거다.

이제는 소 빌리기 맹세(盟誓)코 다시 말자  
⇒ 화자로서의 소를 빌리러 갈 때 이미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터인데, 은근히 대가를 바라는 소 주인 앞에서는 모욕감마저 느꼈던 게 아닌가 싶다. 화자로서 끈직한 경험이었을 테니,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겠다.

무상(無狀, 내세울 만한 공이 없음)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지향과 정취) 있으리마는  
→ 초라한 이 몸에 무슨 지향이나 정취가 있으리마는  
두세 이랑 발논을 다 목혀 던져두고  
→ 두세 이랑 되는 발과 논을 다 목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粥)이요[→ '죽을 먹고'란 뜻이겠다.] 없으면 굶을망정  
⇒ 죽이라도 있으면 먹고, 그마저 없으면 기꺼이 굶겠다는 거다.

남의 집 남의 짓은 전혀 부러워 말리도다  
⇒ 굶주리는 한이 있어도 '남의 짓'은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이는 여간 예사로운 결심이 아니다. 앞의 '소 빌리기'도 '남의 짓'을 부러워하는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내 빈천(貧賤) 싫게 여겨 손 짓는다 물러가며  
→ 내 빈천 싫어하여 [빈천더러 물러가라고] 손 내졌는다고 [빈천이 내게서] 물러가며  
⇒ 싫다고 해서 쉽게 물러칠 수 있는 '빈천'이 아니라는 거다.

남의 부귀(富貴) 부러워하여 손을 친다 나아오라  
→ 남의 부귀 부러워하여 [부귀더러 오라고] 손짓을 한다 해서 [부귀가 내게] 나아오라  
⇒ '빈천'과 '부귀'를 의인화하여,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님을 토로하고 있다. 자기 분수를 알고 받아들이는 태도라 하겠다.

인간(人間) 어느 일이 운명(運命) 밖에 생겼으리  
→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을 벗어나 생겨났으리  
⇒ 세상의 모든 일이 제 운명대로 생겨났다는 거다. 운명을 벗어나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설의법을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운명론적 인생관이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

빈이무원(貧而無怨,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을 원망하지 않음)을 어렵다 하건마는  
→ 가난한데도 원망하지 않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 가난하게 살다보면 가난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 마련이지만 내 생애(生涯) 이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 내 생활 이렇다 해도 서러운 뜻은 없어라  
⇒ 가난한 삶을 원망하지도, 서러워하지 않는다는 거다.

단사표음(單食瓢飮, 한 바구니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이도 족(足)히 여기노라  
→ 밥 한 그릇, 물 한 바가지도 만족하게 여기노라  
⇒ '단사표음'은 '일단사일표음(一單食一瓢飮)'의 준말로 아주 가난한 삶을 의미한다.

평생(平生) 한 뜻이 온포(溫飽, 따뜻한 입과 배불리 먹음)에는 없노매라  
→ 평생에 [품고 있는] 한 가지 뜻이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데에는 없어라  
⇒ 평생 살면서 '온포'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는 거다. 가난한 삶을 만족하게 여기고 살아왔다는 거다.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형제 사이에 화목함) 신봉우(信朋友, 벗과 믿음으로 사귀) 그르다 할 이 님 있으리  
→ 형제와 화목하고 믿음으로 벗을 사귀는 것을 잘못이라고 할 이가 님 있으리?  
⇒ 유교 사회에서 당연히 '충효'나 '화형제', '신봉우'를 잘못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윤리적 덕목의 추구가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건데, 화자는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 두지 않으려고 한다.

그 밖의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노라  
⇒ 화자가 평생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작품 끝에서야 비로소 명확해진다. 그것은 '충효'와 '화형제', '신봉우'로 대표되는 유교적 덕목들이다. 이들 덕목을 제외한, 그 밖의 먹고사는 문제 등은 분수에 따르는 것이려니 하고 살겠다는 거다.



[22~26] 사회 : 부분 디자인의 요건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법학 -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출원, 등록, 디자인, 출원인, 부분 디자인 제도, 부분 디자인, 부품, 부품 디자인,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공지, 부분 디자인 도면, 선출원주의, 디자인 공보, 확대된 선출원주의, 1 디자인 1 출원

\* 지문 분석

# 문단1 :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보호법

- 1) **부정경쟁방지법**은 시제품 제작 등 물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간, 그 형태를 모방한 물품을 양도, 전시하는 것을 부정 경쟁 행위로 보고 제재한다.
  - ⇒ 철수가 디자인한 명품 가방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해 보자. 그런데 옆 매장의 영희가 철수의 가방을 베껴서 더 싸게 팔기 시작한다면[→ 부정 경쟁 행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때 철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
- 2) 물품의 디자인을 이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려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해당 디자인을 **출원(出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 ⇒ ..... 별도의 절차[→ 출원, 등록]를 거치지만 하면 '디자인보호법'의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 3) 이 법률[→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
  - [백락 짚기]** '디자인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는 디자인의 조건은 .....
- 4)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
  - ⇒ 디자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단 '물품의 형상', '물품의 모양', '물품의 색채', '물품의 형상+모양', '물품의 형상+색채', '물품의 모양+색채',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중 하나여야 한다.
- 5) ..... **시각을 통해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 디자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해야 한다. 물론 그것이 꼭 아름다운 것이 아닐지라도 '미와 관련한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면 된다.
    - [참조]**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다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보통 심사 과정에서 '미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형태적 처리가 이루어졌는지'만을 따진다.
- 6) 디자인이 등록되면 **출원인**은 해당 디자인은 물론[→ 자신이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한 것] **그와 유사한 디자인**에[→ 출원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것까지] 관한 **배타적 권리**를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부여받는다.
  - [백락 짚기]** 왜 '디자인보호법'이 1)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비해 더 강력한 보호 수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철수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기왕이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편이 낫다.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대상	물품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양도, 전시하는 행위	해당 디자인, 그와 유사한 디자인
보호 기간	물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등록일로부터 20년
등록 절차	無	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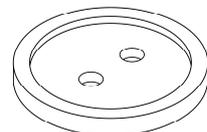
**[참조]**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의미하다.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해서 보호 가치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 디자인이나 막 베끼면 안 된다.

# 문단2 : 부분 디자인 제도

- 1) 그런데 **전체 디자인**만을 보호 대상으로 여겼던 과거에는 물품에서 가장 주의를 끄는 **요부(要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 **다른 특정 부분을 모방하되 나머지를 변형하여 전체적인 미감을 달리하는 방식**[→ 짝퉁인 듯 아닌 듯 짝퉁 같은 방식]으로부터 디자인을 보호하기 힘들었다.
  - [주목]** 과거에도 '물품의 요부(要部)'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었다.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도 보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
    - ⇒ ..... 요부가 아닌 특정 부분만을 모방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디자인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 2) 또한 하나의 물품에 속한 **여러 독창적인 부분**[→ 보호하고 싶어도 물품의 요부가 아니라서 보호할 수 없던 요소] 각각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웠다.
  - ⇒ 1), 2)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겠다. "물품의 요부가 아닌 부분도 충분히 보호하고 싶는데 ....."
- 3) 그래서 2001년에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부분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이 주관적으로 정한 특정 부분에 대해 출원하여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백락 짚기]** 2)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부분 디자인'으로 논의의 초점을 좁히려는 게다.
    - ⇒ 과거에는 '전체 디자인'만 출원할 수 있었지만 2001년부터는 '부분 디자인' 역시 **출원인 마음대로 정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 문단3 : 부분 디자인과 부품 디자인

- 1) **부분 디자인**은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인 **부품**에 대한 디자인과는 다르다.
  - [백락 짚기]** '부분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 '부품에 대한 디자인'을 끌고 오려나 보다.
    - ⇒ '부품'은 하나의 독립된 물품일 수 있지만, '부분'은 '전체'의 일부로서만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일 게다. 하긴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부분'이겠다.
- 2) 부품은 본체에서 떼어 낼 수 있고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분은 **파괴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고**[→ 통상의 방법으로 전체에서 떼어 낼 수 없고] 통상의 거래 방법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것이다**.
  - ⇒ '컵의 손잡이'는 컵으로부터 떼어 낼 수도 없고 독립적으로 거래되지도 않는다. **컵의 손잡이**[→ 부분]는 **컵**[→ 전체]의 일부일 뿐, 그 자체로 독립된 물품일 수 없기 때문이다.
- 3) 그래서 **부품 디자인**의 경우 출원할 때 **실선으로** 해당 부품만을 그려 제출하지만, .....
  - ⇒ 따라서 '부품 디자인 도면'은 전체가 아닌 **부품**만을 그린다. 다음 도면을 참조하자. '옷의 단추'만 보여 주고 있지, **옷 전체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이 자체가 독립된 물품이기 때문이다.



- 4) ..... 부분 디자인의 경우 **실선으로** 해당 부분[→ '부품 디자인'과의 공통점]을 그리고 **파선으로** 나머지 전체[→ '부품 디자인'과의 차이점]를 그려 이를 제출해야 한다.
  - ⇒ '부분 디자인 도면'은 부분은 물론이고 전체까지도 그려야만 한다. 이 자체가 독립된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도면을 참조하자. 부분에 대응하는 '컵의 손잡이'는 물론, **컵 전체까지도 보여 주고 있다**.



# 문단4 :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 1)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으로 .....  
 [백락 짚기]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  
 2) .....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부분을 포함한 물품이 공업적으로 양산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성립하려면 공업적 생산 기법으로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공업적 생산 기법'에는 수공업적 생산 기법까지도 포함된다.  
 3) 또 [신규성]은 '공지된 물품[→ 부분을 포함한 물품]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등록 요건이다. [공지]란 이미 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이미 '공지'된 물품의 부분이라면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이때 '이미 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상태'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다.  
 4) 부분의 이미지만 공지된 상황에서 전체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은 '신규성' 위반이 아니다.  
 ⇒ 뭐 그렇다. 예를 들어 물품의 부분만을 찍은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됐다 하더라도, 물품 전체의 디자인이 공지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다.  
 5) 다만 부분 디자인 도면, 즉 파선으로 표현된 부분까지 포함된 도면이 공지된 상황이라면(→ 문단3-4), 전체 디자인이 공지된 것과 다르지 않음] 전체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은 물론, 그에 속한 다른 부분을 출원하는 것 모두 '신규성' 위반에 해당한다.  
 [주목] '부분의 이미지만 공지된 상황'과 달리 '부분 디자인 도면이 공지된 상황'은 전체 디자인이 공지된 것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가방 전체의 디자인이 파선으로 그려진] 가방의 손잡이 디자인 도면이 공지된 상황'이라면 가방 전체[→ 전체 디자인]는 물론이고 가방의 문양, 가방의 잠금장치 등[→ 다른 부분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출원도 불가능하다.  
 6) 공지된 물품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물품이 최초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예외 규정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 부분의 이미지만 공지된 상황 = 전체 디자인이 공지되지 않은 상황  
 → 전체 디자인 출원 가능
- 부분 디자인 도면이 공지된 상황 = 전체 디자인이 공지된 상황  
 → 전체 디자인 출원 불가능(단,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는 12개월 이내에 출원 가능)

# 문단5 : 선출원주의

- 1) [선출원주의]도 등록 요건의 하나이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개 이상 출원된 경우에 먼저 출원된 것만 등록된다는 것이다.  
 ⇒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얘기다. 새로운 것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신규성] 어느 쪽이 먼저 출원되었는지[→ 선출원주의]도 당연히 중요할 게다.  
 2) 선출원한 것[→ 먼저 출원한 것]이 아직 [디자인 공보(公報)]에 게재되지 않아서 공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자.  
 [주목] 중요한 전체 조건이다. 이미 공지된 것이라면 일단 문단4-3)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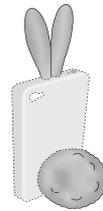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 선출원주의]를 따지기도 전에 탈락이다.

- 3) 선출원한 것이 전체 디자인이고 그 물품에 대한 부분 디자인을 후출원하였다면 부분 디자인은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나중에 출원된 '부분'은 먼저 출원된 '전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게다.  
 4) 선출원한 것이 부분 디자인인 경우에는 출원 내용에[→ 부분 디자인 도면에 이미] 파선으로 전체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여 그 전체와 유사한 전체 디자인으로 후출원한 것의 등록을 받아 주지 않는다.  
 ⇒ 결국 부분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던 전체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던, 전체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라면 나중에 출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Rew] 문단4-5)와 같은 논리이다.  
 5) 단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의 예외 규정].  
 ⇒ 동일인이라면 부분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고 전체 디자인을 나중에 출원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얘기겠다.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고려할 때, 결국 '부분 디자인'과 '전체 디자인'이 함께 등록되는 유일한 경우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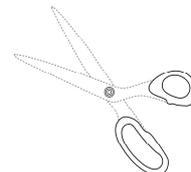
- '전체 디자인 출원 → 부분 디자인 출원' : 선출원주의 위반
- '부분 디자인 출원 → 전체 디자인 출원' :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 (단, 두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반이 아님)

# 문단6 : 1 디자인 1 출원

- 1) 등록 요건 중에는 [1 디자인 1 출원]도 있다. 물품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부분을 하나의 부분 디자인 출원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백락 짚기] '부분 디자인'의 마지막 요건이다.  
 2) 다만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칭이거나 한 쌍이 되는 등의 관련성이 있고 일체로서 미감을 일으키면[→ 문단1-5)]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 이런 경우를 떠올리면 되겠다. 각각이 부분에 해당하는 '토끼 귀'와 '토끼 꼬리'는 한 쌍이 되어 미감을 일으키는 '형태적 일체성'을 갖추고 있다.



- 3) 혹은 기능적 일체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가위의 손잡이, 혹은 전화기의 버튼들처럼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떠올리면 되겠다.



- 4) 예외로 인정되면 두 부분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간주한다.  
 ⇒ 그렇다. 다만 형태적·기능적 일체성을 갖춘 두 부분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간주하여 '1 디자인 1 출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 아예 '2 디자인 1 출원'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백락 짚기] 결론적으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려면 문단4, 5, 6의 요건들을 전부 충족해야만 한다.

[27~32] 과학-예술 : 진화론적 설명과 예술의 기원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물학 - 진화론
다윈, 자연 선택, 형질, 성 선택, 집단 선택론, 전통적 진화론, 도킨스, DNA 서열, 유전자, 대립 유전자, 감수 분열, 표현형, 운반자, 비관, 확장된 표현형
예술 - 미학 - 예술의 기원
정신 활동, 진화론, 미학자들, 카밀라 파워, 장식, 디사나야케, 특별하게 만들기

\* (가) 지문 분석

<p># 문단1 : 전통적 진화론</p> <p>1) <b>다윈</b>에 따르면 <b>자연 선택</b>이란 생존에 유리한 <b>형질</b>을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아 세대를 거듭하고 <b>그렇지 않은</b>[→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갖지 않는] 개체들은 <b>도태되는 것</b>[→ 세대를 거듭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매우 추운 환경에서는 '두꺼운 털가죽[→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얇은 털가죽[→ 생존에 불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보다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두꺼운 털가죽'은 다음 세대에도 더 많이 전달될 테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곧 다윈이 말하는 '자연 선택'인 것이다.</p> <p>2) 공작새 수컷의 크고 화려한 깃털처럼 <b>생존에 불리한 형질임에도</b> 도태되지 않은 것은 <b>성 선택</b>으로 설명된다. 암컷에게 선택받는 형질이 후대에 전해진다는 것이다.          ⇒ "공작새 수컷의 크고 화려한 깃털은 생존에 불리한 형질[→ 이미 도태되었어야 하는 형질] 아닌가요?"에 대한 대답이다. 자연 선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보완이다. 선택이 개체 생존 차원이 아니라 번식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논리다.</p> <p>3) 동물들에게서 발견되는 이타적 행위로 개체의 생존에는 불리한 것인데, <b>집단 선택론</b>은 비슷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위해 한 개체가 희생한 결과라고 본다.          ⇒ 이어서 "자연 선택, 성 선택 전부 알겠어요. 그런데 '이타적 행위' 역시 생존에 불리한 형질인데, 또 암컷에게 선택받는 형질도 아니지 않아요?"에 대한 대답이다. 선택이 개체 차원을 넘어서 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논리다.  <b>[백락 짚기]</b> '성 선택'과 '집단 선택론' 모두 자연 선택에 대한 반증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보완책인 셈이다.</p> <p>4) 도킨스는 진화를 집단이나 개체 수준에서 설명하는 이러한 <b>진동적 진화론</b> [→ 다윈, 성 선택, 집단 선택론]에서 벗어나 자연 선택이 유전자 수준에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b>[백락 짚기]</b> 이와 달리 '도킨스'는 자연 선택이 개체보다 낮은 층위 [→ 유전자]에서 이루어진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는데 .....</p>
<p># 문단2 : 도킨스의 주장</p> <p>1) <b>도킨스</b>에 따르면 자식을 위한 어미의 희생은 많은 부분에서 유전자를 공유하는 자식을 보호함으로써, 해당 유전자[→ 어미의 유전자]가 널리 퍼져 나가기 위한 것이다.          ⇒ '도킨스'에 의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가 많이 존재하는 까닭은 그것이 유전자의 확산에 도움이 되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b>[Rew]</b> 문단1-2)의 '공작새 수컷의 크고 화려한 깃털'은 비록 개체의 생존에는 불리하지만 암컷에게 선택받는 만큼 해당 유전자의 확산에는 더 유리하다. 마찬가지로 문단1-3)의 '이타적 행위'도 집단의 생존에 유리한 만큼 해당 유전자의 확산에는 더 유리하다. 결국 '도킨스'의 주장은 충격적이더라도 '자연 선택', '성 선택', '집단 선택론'의 세 이론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설명 수단인 것이다.</p>

- 2) 그는 **DNA 서열** 중 조합이나 경쟁에 의해 다음 세대에 다른 서열로 대체될 수 있는 DNA 단편(斷片)만을 진정한 의미의 **유전자**라 부른다.  
 ⇒ '도킨스' 입장에서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유지되는 DNA 서열은 딱히 '유전자'가 아니다. '조합이나 경쟁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야말로 유전자의 본질이라 본 것이겠다.
- 3) 갈색 눈과 푸른 눈처럼 대립하는 형질을 지배하는 한 쌍의 유전자인 **대립 유전자**[→ 상동 염색체에서 서로 대응되는 특정 부위.]나, .....  
 ⇒ 이번 세대에서는 '갈색 눈'이더라도 대립 유전자의 조합이 달라지면 다음 세대에서는 '푸른 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형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유전자'가 맞다.
- [참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인 '상동 염색체' 상의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형질 표현에 관여하는 한 쌍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 한다. 두 대립 유전자는 동일한 형질을 발현하는 유전자일 수도 있지만[→ 동형] 서로 다른 형질을 발현하는 유전자일 수도 있다[→ 이형].



- 대립 유전자가 이형일 경우, 그중 하나의 형질만이 발현되고[→ 우성] 나머지 하나의 형질은 발현되지 않는다[→ 열성]. 예를 들어 눈 색깔의 경우 '푸른 눈'은 열성 대립 유전자[→ y]에 의해 발현되고, '갈색 눈'은 우성 대립 유전자[→ Y]에 의해 발현된다. 따라서 '갈색 눈'은 대립 유전자의 조합이 YY이거나 Yy일 때 발현되지만 '푸른 눈'은 오직 yy일 때만 발현된다. Y와 y가 함께 있을 때는 y의 형질이 발현되지 않고 가려지기 때문이다.
- 4) ..... 생식 세포의 분열인 **감수 분열** 시에 나타나는 '감수 분열 분리 비틀림' 현상에 의해 특정 유전자가 한쪽 성(性)에서만 우세하게 발현되는 데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이[→ 진정한 의미의 유전자]에 속한다.  
 ⇒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서 성별이 달라지면 발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역시 '유전자'가 맞다.  
**[참고]** 생식 세포의 분열인 '감수 분열'은 비유하자면 제비뽑기와 같다. 대립 유전자의 쌍이 있을 때 감수 분열의 결과로 특정 대립 유전자가 담긴 확률은 50:50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대립 유전자'는 특정 성 염색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대립 유전자가 Y 염색체에 강하게 이끌려서 함께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면, 해당 대립 유전자는 **남성**[→ XY 염색체]일 경우에 훨씬 더 자주 담기게 되고, 그로 인한 형질은 따라서 주로 남성에게서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5) 도킨스는 교배 과정에서 이러한 유전자들 간의 조합이나 경쟁에 의해 후대에 발현되는 형질인 **표현형**이 결정되므로, .....  
 ⇒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든, 생존에 불리한 형질이든, 어떤 형질이 발현되는지는[→ 어떤 표현형이 결정되는지는] 결국 유전자에게 달린 문제라는 얘기다.
- 6) ..... 자연 선택에 의해 궁극적으로 영향을 받고 확산되는 대상은 **유전자**라고 주장한다.  
**[주목]** 도킨스의 결론이다. 한마디로 자연 선택이란 개체들이 더 많이 살아남고, 집단이 더 많이 살아남고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유전자'가 더 많이 퍼질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 문단3 : 도킨스의 이론에 대한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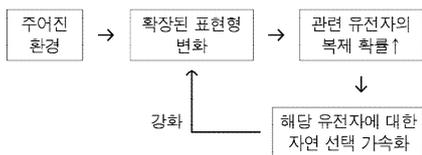
- 1) 도킨스는 유전자가 복제의 단위이자 자연 선택의 단위라 보고, 개체나 집단은 기껏해야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고작 ‘운반자’ 정도의 표현이 불과했나? 이견 양반이다. 이런 표현들 한번 보라. “우리는 자신의 확산에만 관심을 갖는 유전자를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한 ‘생존 기계’, 달리 표현하면 ‘로봇 운반자’에 지나지 않는다.”
- 2) 그래서 도킨스의 이론을 두고 개체의 삶과 관련한 모든 것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유전자 결정론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 이런 비판이겠다. “우리가 고작 운반자에 불과하다고?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전부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과연 타당하나? 유전자가 이 세상의 유일한 변수냐?”
- 3) 도킨스는 이러한 **비판을 넘어**[→ 2)에 반박하고자] 자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것으로 **‘확장된 표현형’**도 제시하였다.

**[맥락 짚기]** 2)에 대한 ‘도킨스’의 반박이 이어질 게다. 자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①만 있는 게 아니라, ②도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이 그 골자겠다.

- ① ‘유전자’ 간의 조합과 경쟁[→ 표현형 결정]
- ② 확장된 표현형

# 문단4 : 확장된 표현형

- 1) **‘확장된 표현형’**은 개체가 개체의 외부에 만들어 낸 인공물이나 산물 등을 말한다.  
⇒ ‘확장된 표현형’은 개체의 외부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개체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유전자’나 그로 인해 결정되는 ‘표현형’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 2) 예컨대 비버는 강가의 나무를 잘라 댐[→ 확장된 표현형]을 만들고 등지를 트는데, 그 결과 비버가 거주하는 수중 공간이 넓어지고 먹이 획득에 유리해져서 .....  
⇒ ‘확장된 표현형’의 예시겠다. 물론 댐 덕분에 비버의 생존은 더 유리해지겠지만 그건 ‘도킨스’ 입장에서 딱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귀여운 비버와 그 댐이나 상상하면서 넘어가자.
- 3) ..... 특정 유전자가 자연 선택될 확률이 높아진다.  
**[주목]** 이견 중요하다. 댐이 비버의 생존에 기여한 만큼, 다음 세대에 해당 유전자[→ 댐과 관련된 유전자]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는데, 이는 곧 해당 유전자에 대한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 4) 도킨스에 따르면 확장된 표현형[→ 댐]은 주어진 환경[→ 유속이 빠른 강]에 따라 모습이 변화하곤 하는데[→ 더 높고 견고한 댐], 그것[→ 확장된 표현형의 변화]이 특정 유전자의 복제 확률을 높인다면[→ 더 높고 견고한 댐을 짓는 유전자를 늘린다면] 그와 관련한 자연 선택은 더 속도를 높인다[→ 해당 유전자가 더욱 빨리 확산된다]. 그 결과로 인해 비버의 신체는 댐을 더 높고 더 단단하게 만들도록[→ 관련된 ‘확장된 표현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을 것이다.  
⇒ 인과적 설명이다. 결국 ‘확장된 표현형’은 주어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특정 유전자에 대한 자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전자 간의 조합과 경쟁이 전부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겠다[→ ‘유전자 결정론’은 아니다]. 결국 이런 식의 피드백 경로로 표현할 수 있겠다.



**[참조]** 물론 ‘확장된 표현형’ 역시 어떤 유전자에 의한 것이 맞다. 이를 토대로 “결국 ‘확장된 표현형’도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 아니겠느냐? 여전히 ‘도킨스’의 주장은 유전자 결정론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유전자에 의한 것’과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확장된 표현형’은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것이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표현형’이다].

- 5) 이와 관련하여 시각을 확장해 보면 인간 사회의 문화나 예술 등도 **일종의 확장된 표현형**이라 할 수 있다.  
**[맥락 짚기]** (나)로 넘어가기 위한 초석이다. 결국 ‘인간 사회의 문화나 예술’ 역시 환경에 대응하여 인간이 만들어 내고 발전시켜 온 것인 만큼 일종의 ‘확장된 표현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 (나) 지문 분석

# 문단1 : 예술의 기원과 진화론

- 1) 인간은 미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융성하게 예술 활동을 벌인다. 오늘날의 예술과 같은 **정신 활동**은 동물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고차원적인 것이어서, 단순히 생물학적 특성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으로 여겨져 왔다.  
⇒ ‘정신 활동’에 대한 이전의 관점이다. 한마디로 형이상학적인 정신 활동은 형이하학적인 생물학의 범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는 얘기다.
- 2) 그런데 **진화론**을 수용하여[→ 생물학적 특성을 토대로] 예술에 대해 규명하려는 몇 부류의 **‘미학자들’**은 예술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 양식들이 개체의 번식이나 생존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진화의 산물이라 설명한다.  
**[맥락 짚기]** ‘정신 활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등장이다. ‘진통적 진화론’은 물론이고 (가)의 문단4-5)를 고려했을 때 ‘도킨스’의 관점도 함께 떠올리면서 읽어 나가야겠다.

# 문단2 : 카밀라 파워와 예술의 기원

- 1) 생존에 유리하지는 않지만 번식 과정에서 구애 전략으로 유리한 형질 [→ 성 선택]은 교배의 성공을 도와 세대를 거듭한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는다.  
**[Rew]** (가)의 문단1-2)에서 다른 내용을 떠올려야겠다.
- 2) 이에 착안하여 **‘카밀라 파워’**는 비록 생물학적 형질은 아니지만 **‘장식’**이나 화장, 치장 등 구애를 위한 산물들도 진화의 산물이며, .....  
⇒ 대략 이런 식의 대응 관계가 성립하겠겠다.
- 3) ..... [‘장식’이나 구애를 위한 산물이 생물학적 형질처럼 선천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유사성으로 보아[→ 거의 모든 원시 부족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예술의 기원이라 여겼다.  
⇒ 한마디로 ‘카밀라 파워’는 진통적 진화론[→ 성 선택]을 수용하여 예술의 기원을 설명하려 한 게다.
- 4) 예컨대 거의 모든 원시 부족의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붉은색의 보디 페인팅은 임신 능력을 상징하며, 그러한 붉은색에 군무와 음악이 곁들여져 이루어지는 제의(祭儀) 역시 예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 예술의 기원에 해당한다].  
⇒ ‘카밀라 파워’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례겠다. ‘붉은색의 보디 페인팅’과 ‘제의’ 모두 이성의 선택을 받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거듭 전달된, 진화의 산물이라는 얘기다.

# 문단3 : 디사나야케와 ‘특별하게 만들기’

- 1) 나아가 **‘디사나야케’**는 ‘장식’이나 화장, 치장, 군무 등이 식량이나 주거 마련, 환경적 위협에의 극복과 같은 생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그것들을 만들어 내는 행동 양식들을 표출하는 부족들이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살아남았다고 보았다.

**[맥락 짚기]** ‘디사나야케’는 더 나아가 아예 ‘장식’이나 구애를 위한

산물이 자연 선택의 측면에서 생존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2) 그에 따르면 예술은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장식’하기, 과장하기, 문양을 형상화하기 등과 같은 **‘특별하게 만들기’**에 의한 산물들 중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이다. 사냥을 앞두고 몸을 동물의 피로 ‘장식’하고 기하학적 문양을 돌도끼에 새겨 넣거나, 과장된 몸동작과 역양으로 군무를 추고 노래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상식적으로 돌도끼에 문양을 새겨 넣는다고 명중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닐 테고, 군무를 추고 노래한다고 달리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

3) 이러한 ‘특별하게 만들기’는 짐승을 마주해야 하는 사냥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주술이자 정서적 안정으로 작용하고 사냥 과정에서의 결속을 가져와, 부족의 생존에 필요한 사냥의 성공 확률을 높인다[→ 생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

**[주목]** 이제 알겠다. 직접적으로 생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생존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만들기’는 생존에 유리하다.

⇒ 따라서 ‘특별하게 만들기’를 수행하는 부족들은 살아남아 세대를 거듭하고 그렇지 않은 부족들은 도태된다는 게[→ 자연 선택의 결과] ‘디사나야케’의 핵심 주장이다.

⇒ 이제 정리하자.

‘장식’, 화장, 치장, 군무	
카밀라 파워	디사나야케
생존에 유리하지는 않음	생존에 유리함
근거 : 성 선택	근거 : 자연 선택

**# 문단4 : 디사나야케와 예술의 기원**

1) 디사나야케에 따르면 그러한 기하학적 문양은 위험한 자연적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예술이고, .....

⇒ 원시 부족의 인간들은 기하학적 문양을 새겨 넣음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한 자연적 공간에서 비롯된 공포를 극복하려 했고 .....

2) ..... 폭풍우가 몰아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행하는 군무나 노래는 시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예술이다.

⇒ ..... 과장된 군무와 노래를 통해 언제 끝날지 모를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 했다는 얘기가.

3) 자연을 재료로 삼는 화장이나 ‘장식’ 역시 거친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예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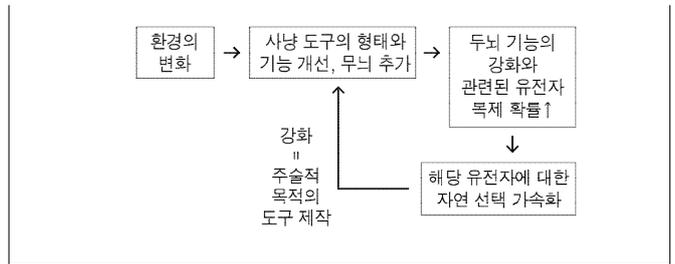
⇒ 앞의 내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다.

4) 디사나야케는 이러한 행위의 산물들의 간접적 도움을 받은 인간 종(種)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자연에서 생존해 왔다고 보았다. 예술은 생존의 직접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생존을 강화시켜 주는 기술인 것이다.

⇒ 물론 돌도끼에 기하학적 문양을 새긴다고 거친 물소의 가죽이 반드시 찢리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부른다고 그 노래를 끝으로 폭풍우가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 하지만 .....

⇒ ..... ‘특별하게 만들기’를 수행하는 부족들은 그럴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고, 그 믿음이 이들이 무질서하고 거친 자연에서 생존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겠단[→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겠단].

**[참고]** 예술의 기원을 ‘도킨스’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문단1-2)의 [맥락 짚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술 역시 일종의 ‘확장된 표현형’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의 문단4-4)의 피드백 경로를 31번 <보기>에 적용함으로써 확인해볼 수 있다.



[33~35] 현대소설 : 유진오, 「김 강사와 T 교수」

\* 수록 지문 평가

제목 그대로 ‘김 강사’와 ‘T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행동은 어떤 심리에서 나왔는지에 주목하면서 글을 읽어 보도록 하자. 일체 강점기,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며 현실과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김만필의 심리가 잘 드러난 글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지는 못하고, 현실 앞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T 강사의 교활하고 능청스러운 행동은 그의 고민을 더욱 커지게 만든다.

\* 수록 지문 분석

“긴장(=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일본말)은 모르시겠지만 당신 일로 H 과장과 우리 학교 교장 새에서 연락을 붙인 것은 사실은 이 나 랍니다.”

⇒ T 교수는 김만필에게 자신이 김만필을 위해 힘썼으며 공치사를 하고 있다.

T 교수의 말은 김만필로서는 처음 듣는 소리였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T 교수의 지금 지위[→ T 교수가 S 전문학교에서 제법 영향력을 지닌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T 교수는 교무 주임을 맡고 있다.]로 보아서 당연히 믿음직도 한 노릇이다.

“그럼, 교장하구두 한 고향이십니까?”[→ 김만필의 질문. T 교수와 교장의 지연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구말구요. 안 그렇습니까?”

T 교수는 뜨거운 차를 후-후 불며 대답했다. 차를 단번에 마시고 나서 이번에는 위스키를 주문했다. 위스키를 연달아 두서너 잔 먹고 나서 T 교수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을 꺼냈다.

“실상은 나는 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답니다. 우리 학교로 오시기 전 부터.”

T 교수의 싱글벙글 웃는 얼굴에는 네 비밀은 내가 환하게 알고 앉았다 는 의미의 표정이 나타나 있었다. 김만필은 슬그머니 겁이 났으나[→ 뭔가 불안한 것이 있는 모양이다.] 잠자코 있노라니 T 교수는 기운이 나서 떠 들었다.

“나는 작년부터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T 교수는 일본인이다.] 그 때문에 언문 신문[→ 한글로 된 신문]을 조선 학생에게 통역해 달 라며 읽고 있었는데(김만필은 가슴이 뜨끔했다.[→ ‘들켰구나’ 싶은 것 이다.]) 그런 관계로 작년 가을이던가 당신이 쓰신 「독일 좌익 작가 군상」 이라는 논문을 읽었어요.[→ ‘들켰구나’ 싶은 심정의 이유이다. 김만필 은 독문학 강사인데, 과거에 좌익 사상을 다룬 글을 쓴 것이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는 지문의 조금 더 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읽기의 편의 를 위해 미리 이야기하자면, 일체 강점기에는 좌익 사상을 불온한 것으 로 취급해 탄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실이 교장이나 H 과장 등 S 전문학교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킨다면, 김만필은 좌익 사상 에 기울었다는 의심을 받고 강사 자리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논문에는 정말 탄복했습니다. 독일 문학에 대해 당신만큼 연구가 깊은 이는 내지(= 일체 강점기에, 일본을 가리키던 말)에도 적을 것입니다. 참 탄복했습니다.[→ T 교수는 겉으로는 김만필을 칭찬하는 듯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도는, 김만필이 좌익 사상을 펼치는 논문을 쓴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다며 김만필을 은근히 위협하려는 것이다.] 그래 나는 H 과장한테 맨 처음 당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이는 우리 편에 서 초빙해도 좋다고, 이래 배도 나도 힘을 썼답니다. 조선 사람 중에도 차차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나오게 됐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많이 힘써 주십시오.”

⇒ T 교수는 끝까지 김만필을 칭찬하고 격려한다. 하지만 겉으로는 김만필을 좋게 생각한다는 듯이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하려

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김만필의 약점을 자신이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말하기 방식에서 T 교수 가 세상살이에 능수능란하며 교활한 인물임을 엿볼 수 있다.

T 교수는 웅변이 되어 김만필을 칭찬하였으나 김만필은 상처나 다친 듯이 속이 뜨끔하였다. 대체 T 교수는 어째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인지 그 내심을 알 수가 없었다.[→ 김만필의 생각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표 현하고 있다.] 「독일 좌익 작가 군상」이라는 논문은 작년 가을에 몇 폰 안 되는 원고료를 목표로 총총히(= 몹시 급하고 바쁘게) 쓴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더구나 그 내용은 S 전문학교의 직원의 한 사람인 김만필로서는 절대로 비밀에 붙여야 할 것이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좌익 사상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직원으로서는 이 사실이 들키면 입장이 곤란 해진다.] 김만필은 그것을 익명으로 하지 않았던 경솔을 새삼스레 후회했다. 그리고 보니 그는 익명으로 쓴 그 외의 몇 가지 논문이 생각났다. 그것들 은 제법 좌익 평론가인 채하고 꽤 흰소리(=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 거나 거드러거리며 허풍을 떠는 말)를 뽐은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것 이 탄로가 되면 모든 것은 다 낭패가 되는 것이다.[→ 학교의 강사 자리 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T 교수는 그것들[→ 익명으로 쓴 좌익 사상을 다룬 논문들]까지도 알고 있는 것일까. 김만필은 의심을 품은 눈초리로 T 교수의 얼굴을 더듬었으나 그는 여전히 싱글벙글 웃고 있을 뿐이었다. [→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T 교수] 김 강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 운 압박을 느꼈다.[→ T 교수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은근한 위협을 알아채 고 김만필은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다. 역시 김만필의 심리를 표현 한 부분이다.]

(중략)

시간을 마치고 교무과로 갔더니 T 교수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오늘은 잠깐 당신께 꼭 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옛저녁 에 오래간만에 H 과장[→ 김만필을 S 전문학교에 소개한 사람] 집에 놀러 갔더니 H 과장은 무슨 까닭인지 당신한테 관해 무슨 이상스런 소문 을 듣고 대단(= 대단히) 기색이 좋지 못한 모양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그러는지는 나도 모르겠소마는,[→ T 교수는 시치미를 떼며 능청을 떨고 있다.] 그대 내가 지금 당신께 할려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 학교 교장 말인데 교장은 원체 성미가 그런 사람인 데다가 무엇인지 당신이 교장 비위를 몹시 거슬러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례의 말씀이지만 당신은 아직 세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고 나는 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론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뒷사람한테 대해서는 철을 찾아 [→ 계절을 따라서] 무슨 선사(= 선물)는 안 한다 하더라도 가끔 찾아가 보는 것쯤은 해 두는 것이 종단 말이고. 들으니까 H 과장도 그 때 이후 찾아가지 않았는지요. H 과장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와 달라서 처음 부터 H 과장 소개로 들어왔겠다, 당신만 잘하면 앞으로는 시간도 차차 더 얻을 수 있을 것인데—.”

⇒ T 교수는 H 과장이 김만필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전해 준다. 또 교장 역시 김만필에 대해 기본이 상해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 뒷사람들에게 인사를 가라는 것이다. 이런 말을 일부러 해 주는 데에는 숨은 의도가 있겠다. 작품 전체의 결말에서 T 교수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혀지지만, 김만필로서는 일단 T 교수의 말에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는 정도는 눈치를 챘을 것이다.

“그러면 저—.”

“아니, 무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니까,[→ 속사정을 모르는 척하는 능청스럽고 교활한 모습이다.] 어쨌든 내 생각에는 오늘 저녁에라도 우선 H 과장 집에라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

“네—.”

김 강사는 분명치 않은 대답을 했으나 T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오랫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마음속의 불똥이 이상스레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쁜 놈들! 내가 비겁한 짓을 하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제멋대로 건방지게 구는구나. 나는 너희들 앞에 말라빠진 이 몸을 내던지고 짓밟든지 차든지 너희들 할대로 하라고 참아 오지 않았느냐. 이 이상 무엇을 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김만필의 내면의 소리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인물의 속마음까지 표현하고 있다.] 김 강사는 보이지 않는 소리로 H 과장과 교장 들을 욕하고 남을 극도로 멸시하는 소리를 뻘뻘스레 친절한 귀땀 모양으로 들려주는[→ 김만필이 보기에 T 교수의 행동이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다.] T 교수의 얼굴에다 마음속으로는 힘껏 침을 뱉어 주었다.[→ 속으로는 김만필이 T 교수를 경멸하며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 반감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즉 불안한 마음에 암만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T 교수의 말대로 보아서의 자기의 운명도 이미 결정된 듯싶었으나 그렇게 되고 보니까 또 전부터 정해 온 배짱[→ 평소의 신념]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김만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 강사는 끝까지 현실에 연연하는[→ 남의 비위를 맞춰서라도 강사라는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자기의 약한 성격에 스스로 싫증과 미움까지 났으나 그렇다고 그것을 어떻게 처치할 수는 없었다. 드디어 그는 이번 한 번만 더 T 교수의 말대로 해 보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이번엔야말로 언젠가 그가 권하듯이 과자 상자를 사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일러 들었다.

⇒ 김만필은 갈등 끝에 결국 과자 상자를 들고 뒷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양심을 저버리고 권력에 야합하여 비굴하게 살지는 않겠다는 신념과 S 전문학교 강사로서의 안정된 생활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안정된 생활'을 선택하게 되는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참고 자료**

**# 작품 전체 줄거리**

동경 제국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 년 반이나 실업자 생활을 하던 김만필은 여러 단계를 거친 청탁 끝에 S 전문학교의 시간 강사가 된다. S 전문학교 교장의 곁에는 T 교수가 있었는데, 아주 친근한 얼굴로 김만필로서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모한 말들을 늘어놓는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자신을 S 전문학교에 취직하도록 도와준 H 과장에게 인사를 하러 간 김만필은 그 집 앞에서 T 교수와 마주치는데, 그는 H 과장에게 너물을 주러 온 길이었다. 김만필에게도 자기와 같은 속물 근성이 있다고 단정 지은 T 교수는 김만필을 데리고 술집을 전전하면서 사실 김만필이 독일어 강사로 일하게 된 것은 자기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과, 자기는 김만필이 좌익 문학을 연구하는 활동을 했음을 알고 있다는 것 등등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 후로 하숙집에 찾아온 학생 스즈키의 말을 듣다가 김만필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강사 생활에 정나미가 떨어진다. 얼마 후 T 교수는 노골적으로 교장에게 선물을 사 들고 가 비위를 맞추라는 얘기를 꺼낸다. 김만필은 선물을 준비해서 교장 집을 향해 나서나 중간에 망설이다가 그만두어 버린다. 그 후 T 교수의 전언 때문에 H 과장을 찾아간 김만필은 자신을 사회주의 활동가로 여긴 H 과장에게 불호령을 듣고 H 과장 뒤에서 비웃음을 흘리고 있는 T 교수를 목격한다.

**#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 재구성한 일련의 사건**

- 1) 김만필은 동경제대 시절 '문화비판회'라는 학생 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했다가, 졸업할 때가 되자 학생 시절 자신이 경멸하던 N 교수에게 청탁하여 S 전문학교의 강사로 취업하게 된다.
- 2) 김만필이 S 전문학교의 독일어 강사로 취업하게 된 것은, 자기가 경멸하던 N 교수 → 권력자 H 과장 → S 전문학교 교장의 순서로 연달아 청탁을 한 결과였다. 다 같은 부류의 속물들에 편승해서 취업을 한 것은 별로 뜻밖한 일이 못 된다.

- 3) 그 과정에서 H 과장과 S 전문학교 교장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심부름을 한 것은 T 교수였다.
- 4) S 전문학교에는 교장을 끼고 호가호위하는 T 교수 일파와 그에 반대하는 정의파의 대립이 있었다. 교장은 최근에 자기와 관련이 있는 S 강사를 초빙했는데, S 강사가 교장과 가까워져 권력의 중심을 차지할까 봐 경계한 T 교수는 맹렬한 암수를 써서 S 강사의 독일어 수업 4시간을 잘라 내서 김만필에게 넘어가게 만든 것이다. 그 바람에 S 강사는 교수로 임명될 자격을 잃었고 그 사실을 억울해하다가 교장과도 멀어져서 반대파에 붙게 되었고 김만필에게는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즉, 김만필이 독일어 강사로 취업하게 된 것은 S 전문학교 내의 암투 속에서 T 교수가 만든 음모의 부산물에 불과했던 셈이다.
- 5) T 교수는 김만필을 임용하면서부터 김만필을 뒷조사하여 김만필의 약점[→ 독일 좌익 문학에 대한 김만필의 연구와 '문화비판회' 활동 경력]을 수집해 놓고 있다. 이것을 잘 이간질하면 교장이나 H 과장에게는 큰 문젯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6) T 교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 김만필에게 자기에게 붙어 H 과장과 교장의 비위를 맞추는 방식으로 처세하라는 뜻을 전달한다.
- 7) 김만필은 지식인으로서의 소신과 안정된 생활 사이에서 갈등을 하느라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교원실에서 조선의 풍습에 대해 들었다며 해괴하고 저속한 얘기를 늘어놓는 T 교수에게 발끈하여 대든다. 교원실의 공기는 싸늘해지고, T 교수는 김만필로서는 처음 보는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 8)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테다가 자기에게 대들기까지 한 김만필의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T 교수는, H 과장에게 교묘하게 정보를 흘려 김만필이 큰 봉변을 당하면서 교직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놓고 병글병글 웃으며 즐긴다.



[39~42] 인문 : 파렛의 '현재 목적 이론'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철학 - 윤리학  
합리적인 행위, 자기 이익 이론, 파렛, 자기 이익, 현재 목적 이론, 합리적 자비 이론

\* 지문 분석

# 문단1 : 합리적인 행위란?

- 1) 행위자가 행할 강한 이유를 갖는 행위를 **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때, .....  
 [백락 짚기] '합리적인 행위'의 정의이며, 앞으로 '합리적인 행위'를 둘러싼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하겠다.  
 ⇒ '강한 이유'가 있어야 '합리적인 행위'라는 얘기다. 가령 "너 왜 그랬어?" "몰라?" 이렇게 답하면 '합리적인 행위'라고 하기 어려운 게다.
- 2) ..... 우리는 어떤 기준에 따라 개별 행위가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백락 짚기] 지문 전체에서 다룰 핵심적인 질문 되겠다. '합리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견해들의 대립을 소개하려나 보다.  
 ⇒ 무엇을 '강한 이유'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 3) 이에 관한[→ 개별 행위가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상식적인 믿음 중 하나는 행위자의 인생 전체를 고려하여 자기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행위가 합리적인 행위라는 것으로, **'자기 이익 이론'**이라 부른다.  
 ⇒ '자기 이익 이론'에 따르면, "너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대해 "내 인생 전체를 고려할 때 내게 최대의 이익을 주니까!"라고 응답할 수 있을 때 그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 4) 이[→ 자기 이익 이론]에 대해 **파렛**은 우리가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점뿐 아니라 .....  
 ⇒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를 실현하는 것만이 합리적이라는 '자기 이익 이론'의 생각과 .....
- 5) ..... 욕구와 시간 간의 관계까지 고려할 때 '자기 이익 이론'은 지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행위자의 인생 전체를 고려'한다는 ['자기 이익 이론']의 생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겠다.

# 문단2 : '자기 이익 이론'에 대한 파렛의 반박

- 1) 어떤 욕구를 실현하는 행위가 합리적인 경우에 그 욕구를 **'합리적'**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자.  
 ⇒ '행위의 합리성'이 '욕구의 합리성'에 기인한다고 보는 게다.
- 2) **파렛**에 따르면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욕구 외에 다른 합리적인 욕구들이 존재한다.  
 [Rew] 문단1-4)에서 '다양한 욕구'를 강조했던 '파렛'의 입장을 떠올리자. '자기 이익 이론'이 말하는 욕구만이 합리적인 욕구는 아니라는 얘기겠다.
- 3) 도덕적 의무를 다하려는 욕구, 자기 이익과 무관한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욕구, 사랑하는 이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욕구 등은 **그것의 실현이 대체로 자기 이익을 줄이지만 모두 합리적인 욕구들**이다.  
 ⇒ '파렛'에 따르면 이런 욕구들도 모두 똑같이 합리적이다.
- 4) '자기 이익 이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러한 욕구들**(→ 2), 3)의 다양한 욕구들 중에서 자기 이익에 대해 **편향을 가진 욕구**(→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욕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나[→ 행위자가 행할 가장 강한 이유를 갖는다고 주장하겠지만, 위대한 작품을 추구하는 예술가나 자연의 근본 원리를 발견하려는 과학자의 성취 욕구가 그보다 덜 합리적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 ⇒ '자기 이익 이론'의 지지자들이야 모든 합리적인 욕구들 중에서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욕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다. '파렛'에 따르면 모든 합리적인 욕구들은 **똑같이** 합리적이다.
- 5) **그러한 이유로 파렛은 현재의 욕구나 현재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행위가 곧 합리적인 행위**라는 **'현재 목적 이론'**을 제시한다.  
 ⇒ 파렛의 '현재 목적 이론'은 자기 이익을 향한 욕구뿐만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욕구들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현재의 합리적인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자기 이익 이론과 대비된다.

# 문단3 : 파렛에 대한 '자기 이익 이론'의 반박

- 1) **'자기 이익 이론'**은 '행위를 해야 할 이유는 시간을 넘어 존재하며 힘을 가진다'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현재 목적 이론'**[→ '현재의 욕구'여야 한다는 파렛의 주장]을 반박한다.  
 ⇒ '시간을 넘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에 주목해야겠다.
- 2) **이에 따르면**[→ 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시간의 넘어' 존재하는 것이라면] 누군가 미래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를 미래에 가진다고 할 때 그는 그 이유를 지금도 가지는 셈이므로[→ 특정한 시점의 욕구에 대하여 그것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는 그 특정 시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시점에서 존재하므로], 당신이 행할 강한 이유를 가지는 행위[→ 합리적인 행위]는 인생 전체에서 당신이 가지는, 자신의 이익을 향한 모든 욕구를 최대도 실현하는 행위인 것이다.  
 [Rew] 문단1-3)을 떠올리자. 한마디로 행위자의 '인생 전체를 고려하여' 최대의 이익을 주는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얘기겠다. .
- 3) 이렇게 '자기 이익 이론'은, 행위자의 인생 전체가 아니라 지금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현재 목적 이론'**과 다를 뿐 아니라, 자신의 욕구는 물론 타인의 욕구도 고려해야 한다는 **'합리적 자비 이론'**과도 다르다[→ '자기 이익 이론'은 자신의 욕구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결국 '자기 이익 이론'과 '현재 목적 이론' 사이의 차이점을 짚는 데에 주목해야겠다.

# 문단4 : 욕구와 시간의 관계

- 1) **'자기 이익 이론'**은 행위자 자신의 이익을 향한 욕구가 그것이 **언제부터** 행위자에게 존재하는지와 무관하게 언제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욕구로서, **'시간적 중립성'**을 가진다고 여긴다.  
 ⇒ 과거의 욕구든 현재의 욕구든 미래의 욕구든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얘기겠다.  
 [Rew] 문단3-1)의 '자기 이익 이론'에서 행위를 해야 할 이유는 '시간을 넘어' 존재한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겠다.
- 2) 설사 '시간적 중립성'을 거스르는 경향[→ 시점에 따라 욕구가 지닌 가치를 달리 평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더라도 그러한 경향을 따르는 행위는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 과거의 욕구와 현재의 욕구, 미래의 욕구의 가치를 달리 평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얘기겠다. 그런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다.
- 3) 이에 대해 **파렛**은 '자기 이익 이론'에서의 합리성 판단 기준[→ '인생 전체를 고려할 때 자기의 이익'이 최대화되는가?]이 왜 '행위자에게 까지만 상대화되고[→ '모든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고려하면서], '현재의 행위자에게까지 상대화될 수는 없는가[→ '모든 시점의 행위자'가 아니라 '현재의 행위자'만을 고려하는 것은 왜 안 되는지]라고 묻는다. 행위자가 타인의 욕구를 관심에서 배제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해서는 상대화하면서] 자신이 다른 시간에 갖는 욕구를 관심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 '현재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상대화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 ‘자기 이익 이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타인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을 구별하듯이, 서로 다른 시점의 행위자에 대해서도 구별해야만 일관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4) 또한 파팿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욕구의 실현과 현재에 가지는 욕구의 실현에 똑같은 비중을 부여할 수 있는지[→ ‘시간적 중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지를 묻는다.

⇒ ‘과거의 욕구’와 ‘현재의 욕구’를 달리 평가하는 것이 왜 비합리적 인가를 묻는다.

5)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보다 현재나 미래에 실현될 만족이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래에 대한 편향’[→ ‘과거에 가졌던 욕구의 실현’에는 매우 작은 비중을 부여하고 ‘현재 가지는 욕구의 실현’에는 높은 비중을 부여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서 그럴 수 없으며[→ ‘과거에 가졌던 욕구의 실현’과 ‘현재에 가지는 욕구의 실현’에 똑같은 비중을 부여할 수 없으며], 또 이 편향[→ 미래에 대한 편향]이 비합리적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 ‘시간적 중립성’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게 ‘파팿’의 결론이다.

#### # 문단5 : 욕구와 시간의 관계에 대한 사례

1) 가령 오랫동안 시인이 되고 싶어 했던[→ 과거에 가졌던 욕구] A가 몇 년 전부터 그러한 욕구[→ 시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온전히 잃어버린 상황을 떠올려 보자. A는 가치관 변화 때문에 그 욕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어서 아직 시 창작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 가치관]한다. 이 상황에서[→ 욕구는 잃었지만 가치관이 그대로인 상황] 시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A의 행위는 합리적인 것일까?

[맥락 짚기] 문단4의 견해 대립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나 보다.

2) ‘자기 이익 이론’은 A가 인생 전체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시인이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인생 전체를 고려하여], 현재 그러한 욕구[→ 과거에 가졌던 욕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좋은 시를 쓰려고 노력할 만한 강한 이유가 있다고[→ 합리적이라고] 볼 것이다.

[Rew] 문단3에서, ‘자기 이익 이론’은 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시간을 넘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다시 떠올리자.

⇒ 이렇듯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시를 쓰려는 노력이 A의 이익을 최대로 실현하는 행위라는 주장이겠다. 그러나.....

3) 그러나 파팿에 따르면 이는[→ A에게 현재 시를 쓰려는 욕구가 없지만 그의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 파팿은 현재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현재 시인이 되려는 욕구가 없는 상황에서 시를 쓰는 A의 행위는 비합리적이라는 거다.

